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여...

2018년 1월 ~ 6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2:1~4)

사역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과 겸손을 바탕으로 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종종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역을 통해 아동이 금방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면 그 열매가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 아이에 대해 더 한 정성을 들이지만 얼마 못가서 이내 실망시키면 좌절하게 되고 '안되나 보다...'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또다시 대견하게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경험이죠? ^^;;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기다려주고, 바울이 고린도교인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고 했던 것처럼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에 열심을 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사역에 함께 해 주시고 격려주시고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주요사역

* 교육을 위한 사역 (방과후 활동, 현장학습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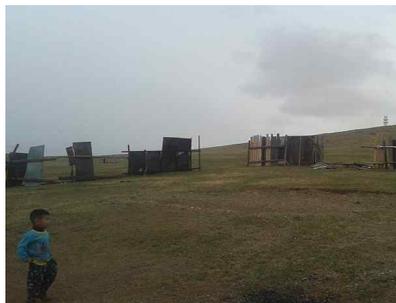


● 각종행사사진 (1줄:눈썰매/2줄:체육대회/3줄:저학년소풍/4줄:생필품지원/5줄:아버지의날/6줄:생일파티/7줄:여름캠프)



*** 게르지원을 통해 빈곤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싶음.**

지난 5월 몽골을 방문 하신 손님을 통해 게르를 지원하기로 예정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소개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위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집의 상황을 보고는 마음이 방향을 잃고 멍하게 되었습니다. 담장은 다 허물어져 가고 문은 아예 없고 게르는 다 낡고 헐어서 집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구들은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이 이런데 하물며 여기서 사는 아이와 그 가족들은 어떨까?" 상상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집에는 뭘 해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정은 포기하고 다른 집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이게 잘한 것일까? 하는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 보니 엄마와 생계를 꾸려가는 큰 딸이 울며 불며 통 사정을 해서 자기 맘이 너무 아팠다고 하더군요. 큰 딸은 공부를 잘해서 국립대학에 입학했는데,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암튼 다시 생각해 주길 제게 부탁해서 부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새로 단장하고, 비용도 일을 해서 일부 상환하기로 계약을 하고 게르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게르를 짓던 날 지역방송국에서 이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했고, 동장, 학교장도 와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가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관심을 받은 것은 처음일 겁니다. 이번 기회가 이 가정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할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지 않고 울타리 비용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 CDP 졸업파티**



10년~12년 동안 CDP에 결연되어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렇게 떠나보내는 구나" 하는 마음 때문인가 봅니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시간에는 저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이들도 고마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한 듯합니다. 어떤 아이는 병원에 입원중인데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허락받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 중 10% 가량은 자원봉사자로 또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졸업은 졸업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삶을 만들어 가길 기도합니다.

*** 몽골 CDP결연아동이 HOPE CUP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난번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에 HOPE CUP 출정식을 하면서 아동들과 학교 관계자, 부모들도 참석하면서 "아~ 우리 애들이 간다고하더니 정말 가는 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또한 축구선수로 선발되지 않은 아이들도 십시일반 모아서 여정에 간식이라도 보태겠다고 간식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HOPE CUP을 준비하면서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팀들 보다 더 잘 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을 받도록 그리고 공연을 준비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멋지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힘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다독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고 연습하여 대회에 참가하고 몽골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하고 말입니다. 또한 몽골과 한국에서의 일정을 통해 경험 한 것들이 자기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이 경험이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 김준태, 천선희 선교사 올림.